

경제

2015년 경제동향	185
2015년 경제성장	190
물가	192
통화·금융	194
국제수지	198
재정	200
조세	202
공정거래	204
경제협력	206
농림축산	211
해양수산	219

제조업	224
건설·교통	231
주택·부동산	237
에너지·자원	240
정보·통신	241
금융업	249
증권	253
유통업	256
중소기업	258
재계동향	260

2016
연합연감

경제

2015년 경제동향

■ 개황

2015년 우리 경제는 메르스 발생, 세계경제 및 교역량 부진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추경 등 재정보강, 소비, 투자 활성화 대책 등 적극적 경기대응으로 2.6% 성장했다.

세계경제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 회복속도의 차별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됐으나 일본, 유로존은 회복세가 공조하지 않았다.

중국은 내수 중심 성장 전략 전환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됐고 브라질, 러시아 등 자원국은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부진이 지속됐다.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 변화,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리스크, 중국의 금융 경제 불안 우려 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2014년에 비해 변동성이 확대됐다. 원·엔 환율은 엔화 대비 달러화 강세 둔화, 중국 등 신흥국 통화 약세 영향 등으로 상승했다.

또한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수출규모는 2014년 세계 7위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2015년 4천844억 달러로서 6위로 상승했다.

또한 수출 증가율은 금액 기준으로 7.4% 감소했지만 10대 수출국 중 상승률이 4위를 달성하는 등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한편 2015년 경상수지는 2014년 843억 달러 보다 증가한 1천5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2015년 물가상승률은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 글로벌 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14년 1.3%보다 둔화된 0.7%를 기록했다.

고용은 청년, 여성 일자리 대책 등 고용률 70% 로드맵의 충실한 이행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확대돼 취업자 수가 33만7천명 증가했으며 고용률(15~64세 기준)은 역대 최고치인 65.7%를 기록했다.

2015년 하반기 금융시장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 경기 둔화, 기업실적 부진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됐으며 주가는 미국 금리인상 불확실성, 중국 금융 불안 등으로 등락을 지속했다.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은 위험자산 회피, 달러화 강세 등으로 6월 이후 순매도가 지속됐다.

기업의 자금사정은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수준이나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신용 경계감으로 업종별 신용등급별 차별화를 보였으며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폭이 예년에 비해 확대되고 부도 업체수 및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년 대비 감소추세를 보였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2015년 3월 12일에 1.75%로 0.25%p 하락한데 이어, 메르스 등에 따른 내수 부진과 세계경기 둔화 등에 따른 수출 부진 등 경기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6월 11일에 1.50%로 0.25%p 추가 인하됐다.

다만 하반기 이후에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국내 경기 부진 등 복합적 요인 등을 반영해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동결됐다.

■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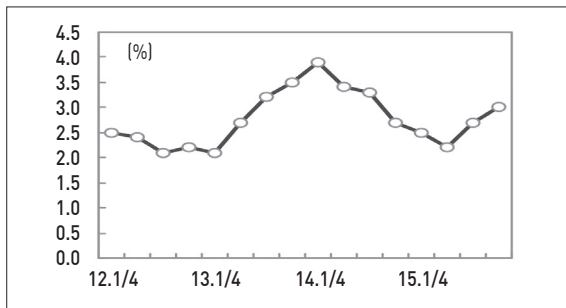
2015년 우리 경제는 전년 대비 2.6% 성장률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보면 메르스 등으로 인한 경제 충격으로 2분기 2.2% 성장에 그쳤지만 이후 정부의 대응 정책 등

로 다시 회복세를 보여 3분기 2.8%, 4분기 3.1%로 회복세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015년에는 2014년 3.3% 성장률보다 하락한 2.6% 성장을 기록했지만 주요국과 비교해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우리와 인구, 소득 여건이 비슷한 국가(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인구 2천만 명 이상인 국가) 중 성장률 3위를 기록했으며 무디스 등으로부터 역대 최고 신용등급(Aa2)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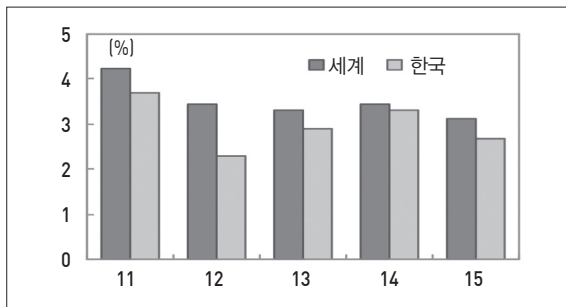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성장세가 둔화됐으나 건설업 생산이 2014년에 0.8% 성장에 비해 3.0%로 크게 증가했다.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3.6%로 2014년 2.9%p에 비해 크게 증가하며 순수출의 마이너스 성장기여도를 보완하며 경기회복을 이끌었다. 이를 통해 2015년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

GDP 성장경로(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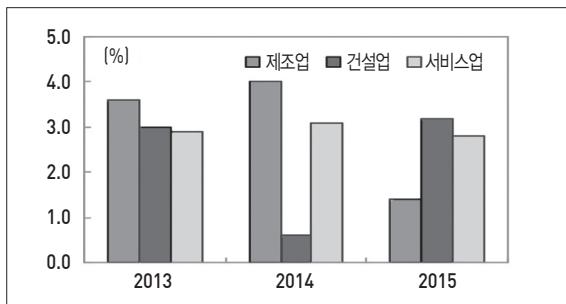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세계경제 · 한국경제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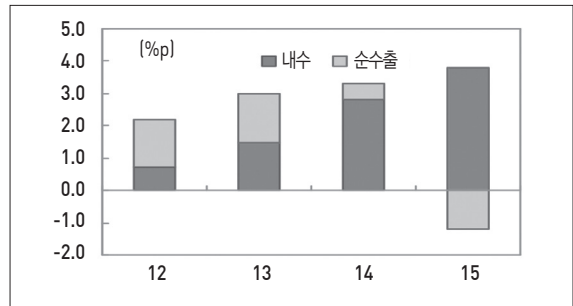
자료 : IMF, 한국은행

산업별 성장률



자료 : 한국은행

내수 · 순수출 성장기여도



자료 : 한국은행

지출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2015년 6월에 발생한 메르스의 영향으로 2분기에 전기비 대비 -0.1% 성장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추경, 개세 인하, 블랙 프라이데이 등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3분기 1.1%, 4분기 1.4%를 보이는 등 회복세를 시현했다. 연간으로도 2014년 1.7% 성장에 비해 2015년 2.2% 성장하는 등 민간소비는 회복세가 강화됐다.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등에 따른 주택거래 증가, 분양시장 활성화 등 긍정적 요인으로 2014년 1.1% 성장 보다 증가한 2015년 3.9%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4분기에는 토목 건설이 조정되며 전기비 대비 2.4% 감소세로 전환됐다.

설비투자는 2014년 6.0%보다 감소한 2015년 5.3% 성장세를 보였지만 운송장비 투자가 증가하며 2014년 2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

2015년 수출은 5천272억 달러로 세계경기 둔화, 유가하락, 세계교역 축소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 해외생산 확대 등 구조적 요인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9% 감소하는 등 부진했다.

다만 세계 수출 순위에서 2014년 7위에서 6위로 상승했으며, 주요국 수입시장 점유율에서 경쟁국 대비 점유율(중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이 2014년 9.7%에서 2015년 1~10월 기준 10.8%로 상승)이 상승 또는 유지되는 등 주요국 대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무역수지는 904억 달러로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 · 반도체는 휴대폰 부품, 시스템 반도체 호조로 증가했으나 철강 · 평판 DP · 자동차 · 일반기계 등은 공급과잉, 신흥국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대베트남 수출이 현지 생산기지로의 수출 증가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대중(중국 성장 둔화), 대중동 · 중남미 · CIS(유가 등 원자재가 하락에 따른 자원수출국 경기둔화), 대일 · EU(경기회복 지연, 엔 · 유로 약세) 수출은 부진했다.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13.3%)했고 대아세안 수출 증가세(3.1%)도 지속됐다. 대중 수출은 4분기 개선세(0.4%)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감소(-0.4%)한 반면 대EU 수출은 연간으로 증가(5.7%)했으나 4분기 이후 감소세(-4.1%)를 보였다.

다만 대일 수출은 엔저 및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12년 이후 감소세(2012년 -2.2% → 2013년 -10.7% → 2014년 -7.2%)가 지속됐다.

수입은 자본재, 소비재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으로 인한 원자재 수입 감소로 총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자재의 경우 유가 등 원자재가 하락으로 주요 품목 모두에서 감소세를 보였으며 자본재의 경우 메모리반도체(34.7%), 프로세스와 컨트롤러(15.7%), 기타 무선통신기기부품(18.1%), 비행기(34.2%) 등이 증가했다. 소비재는 자동차·휴대폰(82.5%) 등 수입이 증가했으나, 과일류(-20.9%) 등은 감소했다.

■ 고용

2015년 연간 취업자수는 2014년 기저효과, 메르스 등의 영향으로 33만7천 명 증가했다. 분기별 흐름을 보면 2분기 메르스 영향으로 고용증가세가 둔화했으나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점차 증가세가 확대됐다.

청년·여성을 중심으로 구직활동이 확대되며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실업률이 동반 상승했으며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고용률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개선세를 시현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 장년층이 취업자 증가세를 주도했으나 고령층이 많은 농림어업 부진의 영향으로 60세 이상의 고용률은 하락했다.

핵심연령대인 30대와 40대는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취업자가 감소했고 청년층은 전년에 이어 6만8천 명 증가하며 고용률이 큰 폭 상승했다.

산업별 고용추이를 보면, 서비스업은 메르스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전년보다 둔화했으나 하반기 들어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며 금융·보험업은 업계 구조조정 여파로 감소세가 확대됐다.

제조업은 연평균 15만6천 명 증가하며 증가세가 확대됐으며 건설업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으로 고용증가세가 지속됐다. 농림어업은 고령화,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기초연금 도입으로 영세 고령농 은퇴가 늘며 감소세가 확대됐다.

연령별 취업자 증감

(단위: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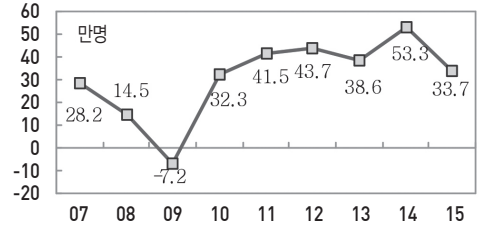
	2013	2014	2015
15~29세	-5.0	7.7	6.8
30~39세	-2.1	-2.1	-3.8
40~49세	2.2	3.8	-1.4
50~59세	25.4	23.9	14.9
60세 이상	18.1	20	17.2

연령별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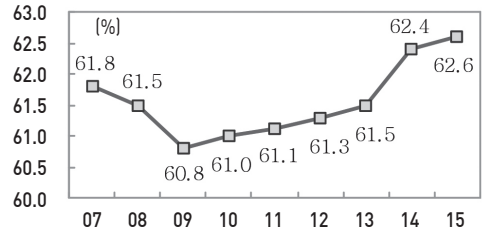
(단위: %)

	2013	2014	2015
15~29세	39.7	40.7	41.5
30~39세	73.2	73.9	74.2
40~49세	78.4	79.1	79.1
50~59세	73.1	74.2	74.4
60세 이상	38.4	39.0	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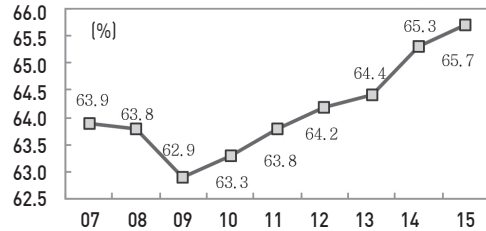
취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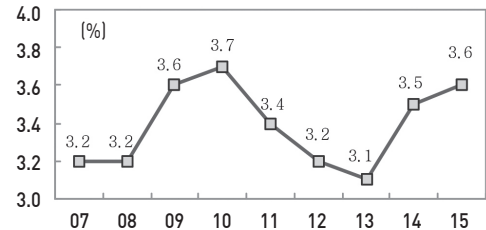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15~64세 기준)



실업률



산업별 취업자 증감

(단위: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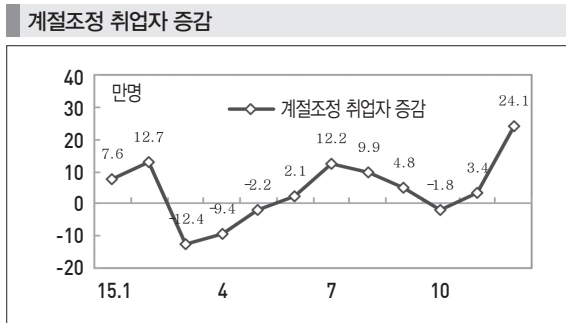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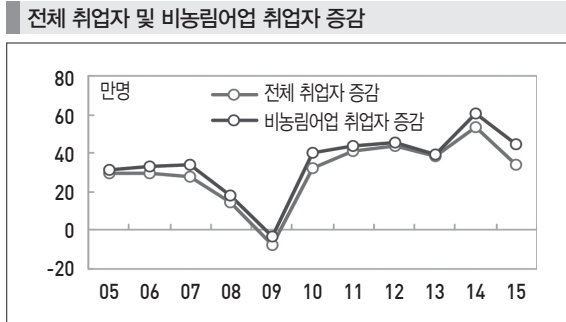
	2013	2014	2015
제조업	7.9	14.6	15.6
건설업	-1.9	4.2	2.7
서비스업	31.7	42.6	25.0
보건·복지	15.5	13.9	7.7
도소매	-2.9	13.2	-0.8
음식숙박	6.4	12.7	8.2
금융보험	2.2	-2.6	-4.8
농림어업	-0.8	-6.8	-10.7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용직이 고용 증가세를 주도한 가운데, 임시일용직은 증가세가 둔화됐다. 자영업자는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농림어업 고용 부진 영향으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감소했다.

	2013	2014	2015
임금 근로자	48.3	54.8	48.7
상용직	61.5	44.3	43.2
임시직	-9.6	14.0	5.4
일용직	-3.7	-3.5	0.1
비임금 근로자	-9.7	-1.5	-15.1
자영업자	-6.7	0.1	-8.9
무급가족 종사자	-3.0	-1.6	-6.1

2015년 고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메르스 등으로 성장세 둔화, 전년 높은 취업자 증가폭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30만 명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특히 고령화 등 비경기적 요인으로 인해 감소한 농림어업을 제외할 경우 과거와 유사한 수준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내수 회복 흐름을 보인 하반기 이후 전월비 기준으로 전반적인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고용증가 모멘텀이 유지되는 모습이다.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높은 상용직 취업자가 크게 증가해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직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비정규직 비중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축소됐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등 가계소득 확대정책으로 임금상승률이 3%대로 회복하고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등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했다.

고학력·저출산·경단녀 대책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가 지속돼 남성보다 높은 고용증가세를 기록했으며 연령대 이동 효과, 기대여명 증가에 따른 노동시장 잔류 현상으로 50대 이상 장년층이 고용증가세를 주도했다.

청년층의 경우 연초 실업률이 10%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내수 회복세, 청년대책 등으로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2014년에 이어 견조한 고용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비스업 고용은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구조조정이 지속되며 감소세가 확대됐으며 농림어업도 2014년 하반기 이후 감소세가 두드러진 모습이다.

■ 소비자물가

2015년 소비자물가는 2014년 대비 0.7% 상승했다. 수요 측 상승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국제유가·곡물가격 하락 등 공급 측 하방요인이 두드러지며 저물가 흐름이 지속됐다.

생활물가는 석유류 가격 하락, 가스·전기요금 인하 등으로 199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0.2% 하락해 서민 생계비 부담을 더는데 기여했다.

석유류·농산물 등 공급 측 변동요인을 제거해 기초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2%대 상승해 2014년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단위: 전년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소비자물가	3.0	4.0	2.2	1.3	1.3	0.7
생활물가	3.4	4.4	1.7	0.7	0.8	-0.2
근원물가	1.8	3.2	1.6	1.6	2.0	2.2
농산물·석유류제외	1.9	2.6	1.5	1.5	1.7	2.4

품목성질별 동향 (단위: %)

구분	전체	공업제품		농축수산물	전가수도가스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집세
		석유류	수산물					
2014년	1.3	1.3	-4.3	-2.7	3.9	0.8	1.7	2.3
2015년	0.7	-0.2	-19.2	2	-7.4	1.2	1.9	2.5
(기여도, %p)	-	[-0.07]	[-0.98]	[0.14]	[-0.38]	[0.17]	[0.6]	[0.24]

품목별 동향을 보면 석유류 가격이 19.2% 하락해 공업제품 가격 하락(-0.2%)을 주도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0%p 끌어내렸다.

농축수산물가격은 2014년 가격 하락(-2.7%)의 기저효과, 재배면적 감소, 가뭄 등 상승압력이 컸으나 정부 비축물량 방출, 계약재배물량 출하조절, 할인판매 등 적극적 가격안정대책 등으로 2.0% 상승했다.

공공요금은 도시가스요금 인하(-15.8%)와 전기요금 하계

누진제 완화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0.4%p 하락효과가 있었으며 공공서비스 가격 상승률도 1%대 초반(1.2%)으로 안정됐다.

개인서비스는 외식서비스 가격을 중심으로 1.9% 상승했으며 저금리,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등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으로 집세는 2.5% 상승했다.

■ 국제수지 및 수출입

2015년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가 크게 개선되면서 흑자폭이 확대됐다.

상품수지는 세계경제 둔화, 유가하락 등으로 수출 및 수입이 모두 감소했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흑자폭이 확대됐다.

서비스수지는 2014년 36억8천만 달러 감소에 이어 2015년에도 157억1천만 달러 감소하면서 감소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가공수지는 2014년과 적자폭이 비슷했고 운송·건설 수지는 2014년보다 흑자폭이 감소했으며 여행수지는 2014년보다 적자폭이 증가했다.

본원소득수지는 2014년 41억5천만 달러보다 개선된 59억 달러를 시현했고 이전소득수지는 2014년 49억8천만 달러 적자폭과 유사한 2015년 46억1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14'		2015°		
	12	연중	11'	12	연중
경상수지	69.5	843.7	99.1	74.6	1,059.6
상품수지	75.6	888.9	104.7	107.7	1,203.7
수출	524.5	6,130.2	433.6	462.1	5,489.3
	(-1.1)	(-0.8)	(-11.9)	(-11.9)	(-10.5)
수입(FOB)	448.9	5,241.4	328.9	354.4	4,285.6
	(-2.9)	(-2.1)	(-17.0)	(-21.0)	(-18.2)
서비스수지	-6.4	-36.8	-12.6	-17.0	-157.1
가공서비스	-5.0	-56.4	-5.5	-5.5	-54.9
운송	1.6	61.9	2.1	-1.0	30.2
여행	-4.9	-53.6	-7.2	-9.5	-96.7
건설	17.8	152.9	7.8	13.4	104.9
지식재산권사용료	-5.6	-53.8	-0.1	-2.2	-36.3
기타 사업서비스	-9.5	-95.3	-8.8	-11.4	-108.1
본원소득수지	8.9	41.5	8.9	-5.9	59.0
급료 및 임금	-0.4	-4.5	-0.2	-0.2	-0.5
투자소득	9.3	46.0	9.1	-5.7	59.5
(배당소득)	4.2	5.6	4.3	-10.4	2.7
(이자소득)	5.1	40.4	4.8	4.7	56.9
이전소득수지	-8.6	-49.8	-1.9	-10.2	-46.1

주: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금융계정은 2014년 893억3천만 달러에서 1천96억3천만 달러로 순자산 증가를 기록했다. 직접투자는 2014년 187억7천만 달러에서 증가한 2015년 226억 달러를 보였고 증권투자는 2014년 306억1천만 달러에서 증가한 496억1천만 달러를 기록

했다. 파생금융 상품은 2014년 적자에서 2015년에는 25억3천만 달러 흑자로 전환됐다.

	2014		2015°		
	12	연중	11	12	연중
금융계정	106.3	893.3	87.0	77.6	1,096.30
직접투자	6.9	187.7	9.0	14.2	226
직접투자[자산]	20.2	280.4	12.8	36.5	276.4
직접투자[부채]	13.3	92.7	3.8	22.4	50.4
증권투자	63.9	306.1	51.3	74.6	496.1
증권투자[자산]	35.6	398.2	34.1	34.2	423.3
주식	-7.5	139.6	11.9	21.8	170.9
부채성증권	43.1	258.5	22.2	12.4	252.3
증권투자[부채]	-28.2	92.1	-17.2	-40.4	-72.9
주식	-22.1	67.5	-8.5	-26.9	-19.9
부채성증권	-6.1	24.5	-8.8	-13.5	-53
파생금융상품	2.9	-38.3	-6.1	4.2	25.3
기타 투자	62.6	259	16.6	3.8	228.3
기타 투자[자산]	21.9	384.1	-28.3	-31.4	143.8
(대출)	-0.5	104.6	-5.6	-20	96.7
기타 투자[부채]	-40.7	125.1	-44.9	-35.2	-84.5
(차입)	-25.9	108.9	-20.2	-20.1	-20.6
(현금 및 예금)	-0.4	11.8	-14.6	-17	-27
준비자산	-29.9	178.9	16.1	-19.2	120.5
자본수지	0.0	-0.1	0.2	0.0	-0.6

주: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금융시장

주가는 연초 소폭 하락했다가 우크라이나 및 그리스 관련 리스크 완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조기인상 전망 약화 등으로 상승(2월 코스피: 1,986)했다. 이후 그리스 사태, 국내기업 실적 악화 우려 등으로 하락(5월 말 코스피 2,115 → 7월 7일 코스피 2,040)했다.

연말에는 미 달러화 강세, 중국 증시불안 등으로 외국인 주식투자가 순매도를 지속하며 약세 흐름으로 마감(12월 말 코스피: 1,961)했다.

국고채(3년) 금리는 2월 중순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국내 경제지표 부진,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실시 등의 영향으로 반락했다(2015년 1월 말 1.97% → 2월 말 2.03% → 3월 10일 1.94%).

이후 국고채(3년) 금리는 추경에 따른 국고채 수급부담 우려 등 상승 요인과 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기회복세 둔화 가능성 등 하락 요인이 교차하며 등락을 거듭했다가 소폭 상승했다(2015년 5월 말 1.75% → 6월 말 1.79% → 7월 7일 1.83%).

연말에는 미국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완화, 국제유가 약세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2015년 11월 말 1.79% → 12월 말 1.66%).

■ 외환시장

2015년 말 원·달러 환율은 1,172.5원으로 2014년 말(1,099.3원) 대비 73.2원 상승했다. 연평균 환율은 1,131.5원으로 2014년 1,053원에 비해 78.4원 상승했다.

원·엔 환율(100엔당)은 974.1원으로 2014년 말(913.1원) 대비 61.0원 상승했다. 연평균 환율은 934.8원으로 2014년 996.6원 대비 61.8원 하락했다.

원·위안 환율은 177.85원으로 2014년 말 176.37원 대비 1.48원 상승했다. 연평균 환율은 179.5원으로 전년 170.9원에 비해 8.6원 상승했다.

연중 원·달러 환율 추이를 살펴보면 연 초반에는 미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기대 등으로 1,131.5원(3월 16일)까지 상승했다가 미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 조정, 외국인 국내증권 투자 지속 등의 영향으로 1,068.6원(4월 29일, 연중 최저점)까지 하락했다.

연 중반에는 미 경제지표 호조, 엘런 연준 의장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발언(5월 22일, 7월 15일) 등으로 미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기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리스 디폴트 우려, 중국 등 신흥국 금융불안 우려 등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가세하면서 1,203.7원(9월 7일, 연중 최고점)까지 상승했다.

연 후반에는 미 고용지표 부진 등으로 연준의 금리인상 지연 기대가 확대되면서 1,121.0원(10월 19일)까지 하락했다가 미국과 주요국 간의 통화정책 기조 차이 부각, 중국 경기둔화 및 위안화 추가 절하, 저유가 지속 등으로 상승해 12월 30일 1,172.5원으로 마감됐다.

2015년 말 기준 총 외채는 3천966억 달러로 2014년 말 대비 278억 달러 감소했다. 단기외채는 1천87억 달러로 2014년 말 대비 77억 달러 감소했으며 장기외채는 2천878억 달러로 2014년 말 대비 202억 달러 감소했다.

외채가 감소한 것은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금액이 감소하고 은행이 외화차입금을 축소했으며 수출입 감소로 무역신용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단기외채는 수출입 감소에 따른 민간기업 무역신용 감소, 은행 차입금 상황 등으로 감소했으며 장기외채는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의 국고·통안채 투자 평가액 감소, 기업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회사채 상환 등으로 감소했다.

단기외채 감소와 대외채권 증가 등으로 외채 건전성과 지급능력 지표는 전년 말 대비 개선됐다. 총 외채 대비 단기 외채의 비중은 27.4%로 2014년 말 대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순대외채권은 3천232억 달러로 2014년 말 대비 640억 달러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 가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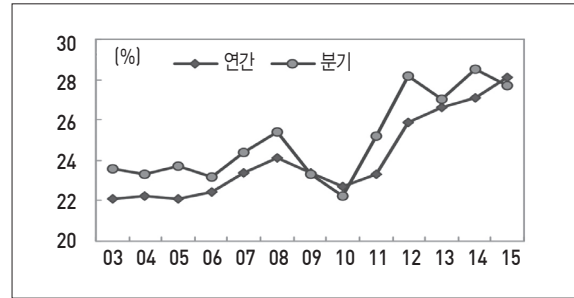
2015년에는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소득분위별로는 저소득층 위주로 소득이 빠르게 증가했다. 월평균 소득은 437만3천원이며 근로소득은 2014년 취업자 증가폭이 컸던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사업소득은 메르스 사태 등으로 감소했다.

이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 시행,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됐다. 월평균 지출은 337만3천원으로 소비지출 둔화는 유가하락으로 인한 교통비 감소, 교육비·통신비 등의 절감이 크게 작용했다.

흑자율 추이

(단위 : %)



주 : 분기는 해당연도 4/4분기 비교

적자가구 비율

(단위 : %)

구분	2014		2015				
	연간	4/4	연간	1/4	2/4	3/4	4/4
전체	22.0	22.6	21.0	24.3	21.3	20.8	21.1
1분위	46.5	50.5	42.5	50.5	44.0	43.2	44.8
2분위	26.1	25.7	24.1	28.1	23.8	22.6	25.3
3분위	17.1	17.1	18.2	22.4	17.6	17.2	17.0
4분위	12.6	12.7	13.1	12.7	12.0	11.4	11.5
5분위	7.6	7.1	7.0	7.6	8.4	9.7	6.7

주 : 적자가구 = 처분가능소득 < 소비지출

가계수지는 소득(1.6%)이 소비지출(0.5%) 및 비소비지출(0.7%)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처분가능소득(356만3천 원) 및 흑자액(100만 원) 증가세도 지속됐다.

분배지표는 1분위 소득이 가장 빠른 증가세(4.9%)를 보이며 소득 5분위 배율이 전국기준 통계작성(2003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됐다.

2015년 경제성장

개 관

2015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2.6% 성장을 기록했다. 내수 회복세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2014년보다 성장세가 축소됐다.

생산측면에서보면 건설업은 2014년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됐으나 제조업 및 서비스업은 2014년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출 측면에서는 민간소비가 메르스 등 충격에도 불구하고 2014년보다 증가세가 확대됐다.

또한 건설투자가 주택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설비투자도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다만 수출은 2014년보다 크게 감소한 0.8% 성장에 그쳤다.